

‘시민주권 전주’ ... 조지훈 민주 원내대표 특보, 전주시장 출마 선언

“500만 전북인의 플랫폼 도시 조성”

개발이익 시민 배당
든든공공 시리즈 등
10개 핵심공약 제시
네 박자 시정 전략도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1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발표하는 ‘전주 전문가 조지훈의 전력질주 선언’을 진행했다.

조지훈 특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시도한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1년을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조지훈의 시민주권 전주로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지훈 특보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민선 8기 전주시정을 불통의 막무가내 행정이 낡은 “총체적 실패”로 평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적 버드나무 벌목 △재정 위기의 6,000억 빚 폭탄 △전주 KCC 농구단의 부산 이전 △낙산 특혜 인사 △수상한 수의계약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드론 축구 △타당성 없는 한옥마을 케이블카 등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진단했다.

따라서 조 특보는 민선 8기 전주시정이 초래한 위기를 타개하고 전주의 ‘진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네 박자 시정 전략 아래 △시빌 스탠다드(civil standard) 프로젝트 △개발이익 시민 배당 △든든공공 시리즈 △만경강 백리길의 K-푸드 클러스터 △전주 하늘길에 여는 ‘드론 택시 프리존’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AI 시민대학 개설 △수포자 없는, 수학 특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1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전주시장 출마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별도시 △시정 출입 차단기 철거 △시정 주요 회의 실시간 중계 등 10개의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조 특보는 네 박자 시정 전략은 △기본사회 선도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시 △일자리·민생 최우선 AI 도시 △시민 존중·시민주권 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조지훈 특보는 네 박자 시정 전략을 축으로 전주를 “500만 전북인의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주의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주춧돌을 놓고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한 ‘기본사회’를 강조하며 “전주 시민의 중산층으로의 삶을 보장하는 ‘시빌 스탠다드(civil standard)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시의 행정 시스템 전반을 기본사회를 뒷받침하는 체계로 혁신”하는 전주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날 ‘조지훈의 전력질주 선언’에는 생애 첫 투표자인 10대 김원상님과 남·여 세대별 주권자 14인이 참석해 “나의 투표로 변하는 전주”를 함께 선언했다.

한편 전주를 연구하고 행동해온 ‘전주 전문가’ 조지훈 특보는 전주동초등학교

학교·덕진중·동암고·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1·12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와 전국 최대의 ‘친이재명’ 정치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주시경 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20%의 신인 가점을 획득한 우범기 현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바 있어 이날 출마 선언으로 4년만의 ‘리턴매치’를 공식화했다. /권혁성 기자

“고향 완주서 새 길 열 것”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향후 포부 밝혀

31여 년간의 공직 여정을 마무리한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퇴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지역 언론과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퇴임 직후 곧바로 지역 언론을 찾은 그의 얼굴엔 활기분함과 책임감, 그리고 고향 함을 향한 깊은 애정이 교차해 있었다.

임 전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굴비 의혹’을 조용히 꺼냈다.

“저 그 굴비, 보지도 못했고 먹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비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던 일도, 준비하던 미래도...”

1년 넘는 시간, 그는 ‘상식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하나로 마음을 붙잡았다고 했다.

지난 11월 10일 검찰이 최종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자, 비로소 그는 공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가족과 동료,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건 그분들 덕분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기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지난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명예퇴임 이후 임 전 지사는 완주 곳곳을 다니다 주민을 만나고



지역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1년 공직 생활 동안 중앙부처, 청와대, 전북도청에서 수많은 정책 조정과 현안을 해결해 왔다고 돌아봤다.

임 전 지사는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히 했다.

“저는 제가 태어나 자란 터, 제게 힘을 준 고향 완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행정 경험,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그 모두를 완주의 미래를 위해 쓰겠습니다. 깊은 찾은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완주의 대도약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그는 완주의 마을과 농촌, 산업·자영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예상대로 완주군수 출마 여부에 질문이 집중됐다.

임 전 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방향성을 내비쳤다.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만간 결단하겠다”며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언론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완주의 대도약과 전북 발전을 위해 언론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를 바꿀 준비 끝... 재정·통합·포용 중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선언 직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시민과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 전주·완주 통합 전략, 민주당 경선 제도 변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전주를 바꿀 준비가 된 실력형 후보”임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먼저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고하고 중요한 일, 급한 일, 작은 예산으로 신속히 처리할 일 등 재정계획을 세밀히 준비하면 위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현실적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현안 해결 방식에서 실무형 행정가의 면모를 드러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행정절차로는 성



사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13년 전주 완주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평분이나 가치만으로는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주 시민과 완주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특별자치단체’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 논의에 대한 이해와 실행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 대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서 시 현안·정책 방향 설명

해서는 “결국 사람에게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캠프 구성부터 자신의 가치까지 모두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조 후보는 “예전에는 소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지만, 소신이 때로는 정보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요즘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포용하는 정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치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유연성과 소통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조 후보는 과거 의정활동에서 이뤄낸 정책 성과도 소개했다.

장애아동 음악·미술·조기교육 바우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전주에 도입해 이후 김제군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보건복지부의 전국 정책으

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12년 전 ‘와이파이 프리존’ 정책을 제안해 오늘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대형 마트의 휴무제를 만들도록 법을 개정한 도화선이자 원동력이 된 이마트 앞 장기간 단식투쟁 등 조 예비후보자는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해결책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진행했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사례도 언급했다.

민주당 경선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후보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했다. 경선이 선호투표 또는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시민과 당원 속에서 얼마나 지지를 확장하는가 승부”라고 전망했다.

조지훈 후보는 이번이 전주시장에 선 전주시 위기를 성정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적과 전략, 그리고 포용적 정치로 무장한 그는 “준비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지지층 확대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 부지사, 공직 31년 담은 에세이 출간

6일 원광대서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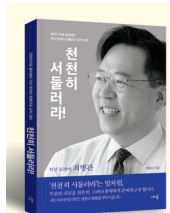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전 행정부지사이자 익산 출신 공직자인 최병관 전 부지사가 31년간의 공직 경험과 삶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 ‘천천히 서둘러라’를 출간했다.

이에 맞춰 시민과 함께 책의 의미를 나누는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오는 6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내 60주년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열린다.

익산 중앙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최병관 전 부지사는 작은 경양식집 ‘00그릴’의 큰아들로 성장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고 이야기한다. 몸이 편찮으셔도 성실과 정직을 강조하던 아버지의 모습, 새벽마다 도시락을 챙겨주시던 따뜻한 손길은 그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잡아준 약속”이었다고 회상한다.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그는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전북도청을 거치며 다양한 정책과 지역 현장을 경험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그의 좌우명인 ‘천천히 서둘러라’는 방향과 실행을 동시에 강조한다. 최 전 부지사는 “천천히는 방향의 확신, 서둘러라는 실행

의 결단”이라며 “준비 없이 서두르는 속도는 위험하고, 확신 없는 기다림도 의미가 없다. 방향이 바로 있을 때 속도가 힘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부모님의 헌신과 성장 배경을, 2부는 시보 공무원에서 중앙부처·청와대·전북도청까지 이어진 31년의 행정 기록을, 3부는 공직을 마무리하고 고향 익산으로 돌아온 뒤 시민들과 일상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영감과 가능성을 담았다.

한편 북콘서트에서는 저자의 인사말, 책에 담긴 이야기, 질의응답, 사회화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돌입 | 노홍석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 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92억 원이 늘어난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295억 원 감액된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12월 1일부터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방소멸대응금 사업의 목적과 그 간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동부권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부권이 보유한 지리적 이점, 관광 인프라, 문화·역사 자원을 적극 발굴해 지역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재원 마련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전주시의 미매칭으로 인해 반납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456억 원을 반납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공항

건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과 도정 핵심사업에 재정이 고르게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합리적인지, 선심성·남비성 예산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제주 세계유산·관광 연구 등 공동 추진

전북자치도의회-제주자치도의회, 문화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문화·관광·세계유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전북도의회의장실에서 문화교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 부의장, 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성수 문화안전소방부위원장, 김정기 문화안전소방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

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 5명이 자리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역사·문화 기반 교류 △관광콘텐츠 공동 개발 △국제 문화·스포츠 협력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연과 지역 교유의 세계적 자산을 연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이만호 기자